

익산시 '효 문화도시' 조성 추진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확대... 효행예절지도사 양성·독거노인 가정방문 계획도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효의 가치를 지역사회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효 문화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효행예절지도사를 양성하고 4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효도분위기 확산에도 적극 나선다.

익산시는 12일 효 문화도시 조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지난달 10일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와 자원봉사센터, 지역의 사회복합법인 등 8개 민간단체와 함께 효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각 단체는 어르신 이 공경 받고 시민이 행복한 효 문화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구축해 효 문화 실천운동에 참여하고 시민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정비도 추진된다.

현재 운영 중인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금액도 인상했다.

4세대이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수당이 기존 1인당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됐고 지역 거주기간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또한 일손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유·아동에게 동화책을 읽어 주며 효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이야기 할머니·할아버지 양성' 사업을 추진해 소소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효에 대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이미지를 적립하고 도시의 정체성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표개발에도 나선다.

특히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통한 가정방문과 주거환경개선, 건강상태 확

인 등 사회안전망 구축 서비스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한 어르신 문화행사인 희망풍차사업과 고회를 맞으신 저소득층 어르신을 초청한 고회잔치 등을 개최해 효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효의 가치를 지역사회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효 문화도시 조성을 통해 따뜻한 익산 만들기에 나설 계획이다"며 "어르신들이 공경 받는 익산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인현 기자



12일 '전북현대모터스 팬 사인회' 이벤트에 이동국 선수와 신형민, 홍정호, 문선민 선수 등 4인방이 참여했다.

현대차 전북본부, 군산경제 활성화 한몫

'전북현대모터스 팬 사인회' 이벤트

현대자동차 전북지역본부가 위촉돼 있는 군산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다.

12일 현대차 전북본부에 따르면 군산시민들 곁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전북현대모터스 팬 사인회' 이벤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군산시민들에게 작은 즐거움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됐다.

K리그를 넘어 대한민국 축구의 전설로 전북을 대표하는 스포츠 명문구단으로 자리 잡은 전북현대모터스의 간판스타 이동국 선수와 신형민, 홍정호, 문선민 선수 등 4인방이 이번 사인회에 참여했다.

이승복 군산시 부시장을 비롯해

김인생 자치행정국장, 김양현 복지관광국장 등 시 주요 관계자들은 선수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특히 이날 현대자동차 전북지역 본부는 차세대 수소차 넥쏘와 NO.1 베스트 셀링카 신형쏘나타를 선보여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현대차 전북본부 관계자는 "전북현대 모터스에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군산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현대차 동차는 앞으로도 중대형 상용차 생산 거점인 전주공장, 전북 대표 명문구단 전북현대모터스 등과 힘을 합쳐 군산 및 전북 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공모 선정

섬유·패션산업 국가 공모 선정 8천만 원 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12일 익산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8천만 원을 지원받아 일자리창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고용관련 비영리법인(단체)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고용창출 등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 사업이다.

익산시는 이번 공모에서 '섬유·패션산업 고용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주

제로 참가했다. 익산시의 섬유·패션산업의 핵심 이슈인 고부가가치·차별화된 섬유·패션 제품개발 및 신시장 창출을 통해 섬유패션산업의 성장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이를 토대로 섬유·패션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ECO융합섬유연구원도 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

ECO융합섬유연구원은 앞으로 섬유·패션 산업에 대한 △지역 생태계 조사 △기업경영마케팅 워크숍 △국내·외 섬유·패션산업 세미나 △섬유·패션산업 UP-Grade 포럼 △기업역량 맞춤형 컨설팅 △비즈니스 네트워크 교류회 등 섬유·패션 산업의

일자리 생태계 개선을 위한 고용네트워크 지원을 추진한다.

익산시는 이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달에 고용노동부 익산지청과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해 12월까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행정력집중 및 지역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얻은 뜻 깊은 성과이다"며 "단순 교육훈련을 넘어 지역의 어려운 섬유·패션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이번 섬유·패션산업 일자리 공모사업 선정에 올해 일자리정책과 소관 국비 공모분야에서 노사상생형 일자리 컨설팅과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 매일시장 주차장 확장 등 총 10개 분야의 정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32억 4천만 원을 확보했다.

/익산=장인현 기자

군산시, 상수도 민원불편 해소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시가 운영하는 상수 상수도 생활민원전담반 운영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민의 상수도 사용에 불편해소를 위해 상수상수도 생활민원 전담반을 편성 운영, 올해 들어 5월말까지 1만여건의 상수도관련 민원 접수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시는 평일은 물론, 휴일·공휴일 및 추석·설 명절을 포함해 연중무휴로 상수도 민원처리 실시하고 있다.

특히 야간 대형 상수도관 파손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조치 및 조속한 복구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현장민원처리 담당을 지정하고 자체 보관소에서 상주 대기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 미제천 일원 수경시설 운영

더불어 쾌적한 안전도시 군산시가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 미제천 일원에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친수공간에 수경시설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미제천 수경시설(분수대)을 방학기간을 고려해 7월 26일부터 8월22일까지 28일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군산시는 현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틀에 한번 사용자 교체와 수질검사, 소독을 통해 위생에도 철저히 기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13년 설치, 1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미제천 수경시설은 매년 여름철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과 관심을 얻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익산시, 중위소득 100%이하로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임산부의 산후회복과 신생아관리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지원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이하 가정으로 확대돼 보다 더 많은 가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보건소는 사업의 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해 상반기 수혜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4일간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89%가 만족한다는 답변을

했고(2018년 상반기 만족도 89%, 하반기 90%) 분야별로는 제공인력의 출퇴근 시간 엄수는 94%, 제공인력의 서비스 친절도 92%, 서비스 권유는 87%, 서비스의 경제적 도움은 89%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 외에도 개선 사항으로는 건강관리사의 직업의식 및 위생의식 개선요구, 성실하고 친절한 업무자세,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교육 요구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미흡사항을 개선하도록 협조·요청했으며 건강관리사의 위생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을 요청했다.

/익산=장인현 기자

군산시-지역건축사회, 사랑의 봉사단 접수리 재능기부

군산시와 군산지역건축사회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봉사단 접수리 재능기부를 펼쳤다.

이번 재능 기부는 한부모 모자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신광초자 지원된 2세대(화장실 2개소)에서 실시했다.

군산지역 건축사회에서 5백만원을 지원하고 군산지역건축사회원과 시민건축직 공무원들이 봉사단을 구성 리 모델링 공사현장에 직접 참여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회원들은 "건축 전문가의 전공을 살려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접수리 봉사활동을 계획했고 매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26일 군산지역 건축사회와 재능기부 협약 체결후 건축법률 무료 상담서비스를 3월부터 매주 수요일 군산시장 토지정보과 내 민원실에서 군산지역건축사회 소속 회원들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요 상담내용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관한 정보안내 ▲건축설계·시공 등 건축공사에 대한 기술상담 ▲위반건축물에 대한 해소방안 ▲기타 건축행정 민원철차 등 건축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